우리 삶 터·소소한 일상들 화폭에…

비전공자 누구나 참여해 즐겁게 그리기 '어반스케쳐스 광주'전
곰아재·서동환·조미영 등 24명 100점…30일까지 오월미술관

땡란 '화관을 쓴 집'

정인경 '인봉세탁소'

최규진 '동명 방앗간'

동명동의 분식집(최준희), 양산동 호수공원(조순옥), 고즈넉한 담양 창평마을(조미영), 그리고 어느 동네에나 있을 법한 세탁소와 방앗간.

우리의 하루하루가 펼쳐지는 삶터와 소소한 일상이 화폭에 담겼다. 전시장에 걸린 그림들 속 풍경은 친근하고 푸근하다. 각자가 작은 드로잉북에 차곡차곡 그려넣은 작품은 개인의 기록이자, 도시의 역사이기도 하다.

소박하게 담긴 일상의 그림을 만나는 장소는 '어반스케쳐스 광주'전(30일까지)이 열리고 있는 광주 오월미술관(동구 문화전당로 29-1)이다.

'어반스케치(Urban sketch)'는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그리는 그림을 뜻한다. 잘 그리는 것보다는 함께, 즐겁게 그림을 그리는 것에 목적을 둔 국제 비영리기구의 이름이기도 하다. 국내에는 광주 등 전국 22개 도시에서 운영중이다.

'우리의 드로잉은 시간과 장소의 기록이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함께 그린다', '우리의 드로잉은 여행지나 살고 있는 장소, 주변의 이야기를 담는다' 등 '어반 스케치'의 규정이 모임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2020년 2월 4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어반스케쳐스광주는 현재 40여명이 활동중이다. 매월 1회 정기 모임(매월 둘째주 일요일)을 진행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USK빛고을광주)을 통해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한다.

이번 전시는 "나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생각하는 이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같다. 혼자 있을 때는 누가 볼까 두려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사진을 보며 집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 등 회원들 모두 모임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고민이 많았었다.

회원들이 이번 전시를 준비한 것도 "'멋진 그림이네'라는 감탄보다 '나도 그려보고 싶다'는 욕구가, '함께 시작하고 싶다'는 용기가 생겨 모두 '일상예술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커서다.

회원 중 전업작가는 없고 모두 아마추어 작가다. 새내기 주부로 동화 같은 드로잉 작품을 인스타에 올려 팔로워가 6만 명이 된 '땡란' 회원, 펜화에 취미를 붙여 회원이 된 서동환 광주아트가이드 편집장 등 연령대도 직업도 다양하다.

회원들은 정기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SNS로 '함께 그리기'를 실천한다. 매주 그림 그릴 장소를 정한 뒤 각자 스케치 작업을 해서 SNS를 통해 공유하는 '주간미션'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주간미션은 벌써 126회에 이른다.

어반스케쳐스 광주는 지금까지 양림동 호랑가시나무언덕, 광주 인문학당, 송정역시장, 용두동 골목길 등을 그림에 담았다. 주변에서 보고 느끼는 공간과 사람들,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어반스케치의 가장 큰 특징이다.

회원들은 모두가 '프로징찬러'이기도 하다. 서로에게 기꺼이 팬이 되어주고 박수를 보내준다. '그림 그리는 행위' 자체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 망설이며 내보이는 그림 한장에 담긴 노력과 값어치를 알기에 그 가능성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9월에는 대구 '책방i아이'로부터 '오월광주' 전시를 요청받고 14명의 회원이 5·18항쟁 역사가 담긴 공간을 그림에 담았다. 결과물은 지난 9월 30일부터 한달여간 책방에서 열린 '오월 광주, 어반스케치전'에서 소개됐고 이번 전시에서도 작품 29점을 만날 수 있다.

전시에는 24명이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인다. 참여작가는 곰아재·김양희·김지운·김혜영·땡란·박정주·서동환·서채은·손세미·양송희·염은진·오영석·유정미·이시연·이연우·이한나·정인경·조미영·조순옥·조혜경·최규진·최준희·홍종희다.

초대작가로 모임을 결성한 그림쟁이 '지니'가 참여한다.

전시장에는 75세가 넘어 화가가 된 모지스 할머니의 글이 적혀 있다.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꿈꾸는 사람에겐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이거든요.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 말이예요."

어반스케쳐스광주 작가소개 홈페이지(https://uskgwangju1.modoo.at)를 통해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작품으로 만들어진 2023년 캘린더도 구매 가능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인협회 신임 회장에 이길옥 시인

"지역문학 활성화 위해 헌신"

이길옥〈사진〉 시인이 광주시인협회 제1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광주시인협회는 지난 16일 전일빌딩245 8층 다목적강당에서 제20회 광주시문학상 및 올해의 작품상 시상을 겸해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단독 입후보한 이길옥 시인이 만장 일치 찬성으로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이 신임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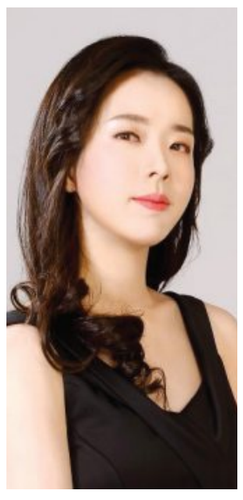
진도 출신인 이 시인은 지난 1974년도 '통일생활' 신춘 문예 시부문에 당선돼 문단에 데뷔했으며 광주 문인협회 부회장과 광주시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지금까지 시집 '하늘에서 온 편지', '사람읽기' 등을 출간했다.

이 회장은 "사단법인으로출발하는 광주시인협회위상을 제고하고 우리 지역 문학의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며 "회원들의 작품을 타 문예지에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고 이전에 해왔던 시낭송대회를 좀더 확대하는 등 소통화 화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피아니스트 송민경 독주회

21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송민경의 피아노 독주회가 21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1996년 호남예술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송민경은 광주예술고와 전남대 음악대를 졸업한 뒤 오리건대 음악대학에서 피아노 연주 및 교수법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광주 피아노 아카데미, 한국미아노 학회,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등의 음악예술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무대에는 로베르트 슈만의 곡을 올린다.

먼저 '아라베스크'를 선보이고 숲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은 '숲의 정경', 뤼케르트의 시에 곡을 붙여 만든 곡이자 슈만이 사랑한 클라라에게 안겨준 곡인 '헌정'을 연주한다.

이어 '봄밤'을 펼쳐 보인뒤 '크라이슬레리아나'로 막을 내린다.

공연은 마하나임 앙상블이 주최하고 광주예고, 전남대 음악대학 동문회, 미국 신시네티 음악대 동문회, 오리건 음악대 동문회 등이 후원한다. 전석초대. 문의 010-2817-0075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목가적 풍경 재해석

도예작가 김순희 초대전, 25일까지 양림미술관

'반가사유상'

도예가 김순희 작가는 오랫동안 박물관 학예사로 근무했다. 도예 작업을 하며 자연스레 늘 함께였던 박물관의 유물들이 작품의 모티브가 됐고, 현대적인 해석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현대도예가 김순희 기획초대전이 오는 25일까지 양림미술관에서 열린다.

'기억의 방을 위한 여섯 개의 은유'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대표작인 '상(像)' 시리즈 등 도자 조각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작가가 기억의 방에 펼쳐 놓은 여섯 개의 은유는 어머니, 말, 반가사유, 버드나무, 동자, 모란이다. 작품의 주된 소재 중 하나인 '말(馬)'은 해학적인 모습으로 등장한다. 자손의 평안과 번영을 부르는 의미로 등장한 모란꽃 속에서 말을 타고 노는 아이의 천진난만한 표정이 인상적이고 고려청자에 그려진 문양을 모티프로 한 '상(像)' 시리즈도 눈길을 끈다.

그밖에 구도적인 배치로 이루어진 설치작품은 '반가사유상'은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느낌을 전한다.

김 작가는 역동적인 느낌의 조각작품과 함께 꽃, 버드나무가 어우러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자연의 색채에도 주목했다.

도자 조각에 가미된 다양한 색채와 칠(漆)은 아름다움과 생명력으로 도자의 특징들을 도드라지게 하며 섬세한 표현으로 화면에 리듬감과 자유로움을 부여한다.

목포대 미술학과와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예과를 졸업하고 국립군산대학교에서 현대미술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 작가는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에 도예작품이 소장돼 있으며 미국 등 34개국에서 순회전과 13회 개인전을 비롯해 KIAF, 독일, 일본, 중국 등의 초대전과 아트페어 등 300여 회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한국현대도예가회(KCCAA), 동아시아도자교류협회 회장으로 활동중인 김 작가는 내년에는 터키와 중국에서 초대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자연의 감동과 환희

김종경 개인전, 25일까지 드영미술관

'자연의 감동과 환희'

'자연과 생명이 주는 감동.'

김종경 작가 개인전이 오는 25일까지 무등산 자락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에서 열린다.

'자연의 감동과 환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산, 강, 나무, 들꽃 등 자연에서 느껴지는 생명의 기운을 화폭에 풀어냈다.

작가는 자연의 형상에서 오는 생명의 기운을 색의 분출과 번짐, 역동적인 선의 움직임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그는 전통분채안료, 대리석, 금강사 등 재료의 특수성을 통해 작품에 새로운 기운을 부여하며 현대 한국화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해 나간다.

미술관 관계자는 전통미술의 방향성을 모색해 본 이번 전시가 "죽음과 생명, 고요함과 시끄러움 등 자연이 지닌 양면성을 살핌과 동시에 자연과 우리의 삶 사이의 연관성이 회화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탐색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김 작가는 중앙대 회화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학부 한국화전공 교수로 재직중이다. 도남갤러리 관장, (사)대한민국신지식인협회 회원, (사)한국화 진흥위원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자문위원, 선묵회원, 예맥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